

Magazine

새벽종

2025 03+04 제19호

새벽종

2025 03+04 제19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THEME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새마을운동

마을에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면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세상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 ▶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 📷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 📘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 📝 blog.naver.com/letssaemaul
- ☎ pf.kakao.com/_zNkxnT

올리다

06

새마을 줄인
새마을운동,
탄소중립으로 미래를 그리다

10

새벽종 소리
함께 심는 녹색 미래

깨우다

22

새마을 인터뷰 ①
전남 무안군협의회

26

새마을 인터뷰 ②
충남 당진시새마을회

14

반가운 올림
이경준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18

새마을운동 일기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대한민국

20

새마을 정보
2025년도 새롭게 바뀐
새마을교육

30

청년 새마을 특
2025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

34

지구촌 새마을, 함께
칸 앞길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36

희망 에세이
따뜻한 봄, 꽃처럼 아름다운
그대에게 칭찬의 편지를 전합니다



Cover Story

봄꽃이 분주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계절, 새마을가족들은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마을을 청소하고, 정 가득 담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새봄맞이를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햇살보다 더 따뜻한 새마을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만나다

38

쉽표 여행
서산의 봄꽃을 산책하다

42

생생정보
약이 되는 봄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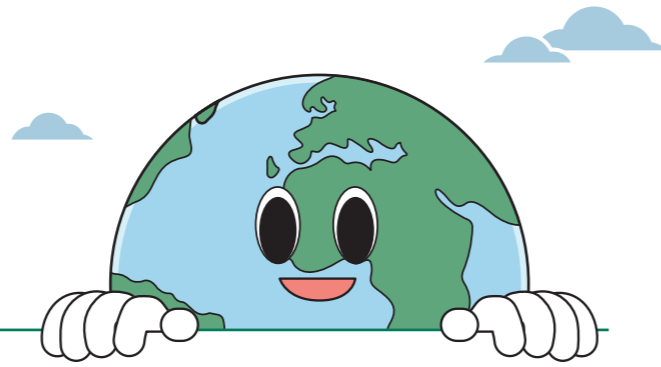
44

새마을 포커스

58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 탄소중립으로 미래를 그린다



탄소중립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실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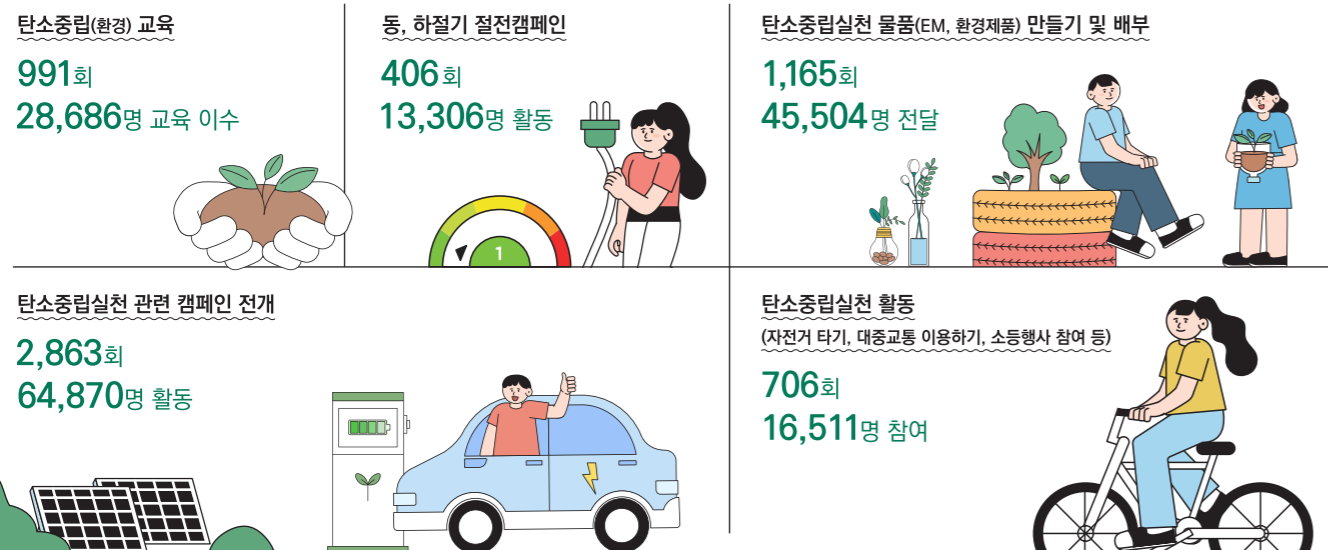
1. 다 함께 나아가는 탄소중립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며, 다 함께 친환경생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지구환경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널리 알리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과 각종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게 한다. 또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 공모전, 워크숍을 개최해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생활 속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지난해, 유례없는 폭우와 숨 막히는 열대야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후 변화의 위협을 절실히 느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마을운동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실천하는 탄소중립의 이야기를 성과와 계획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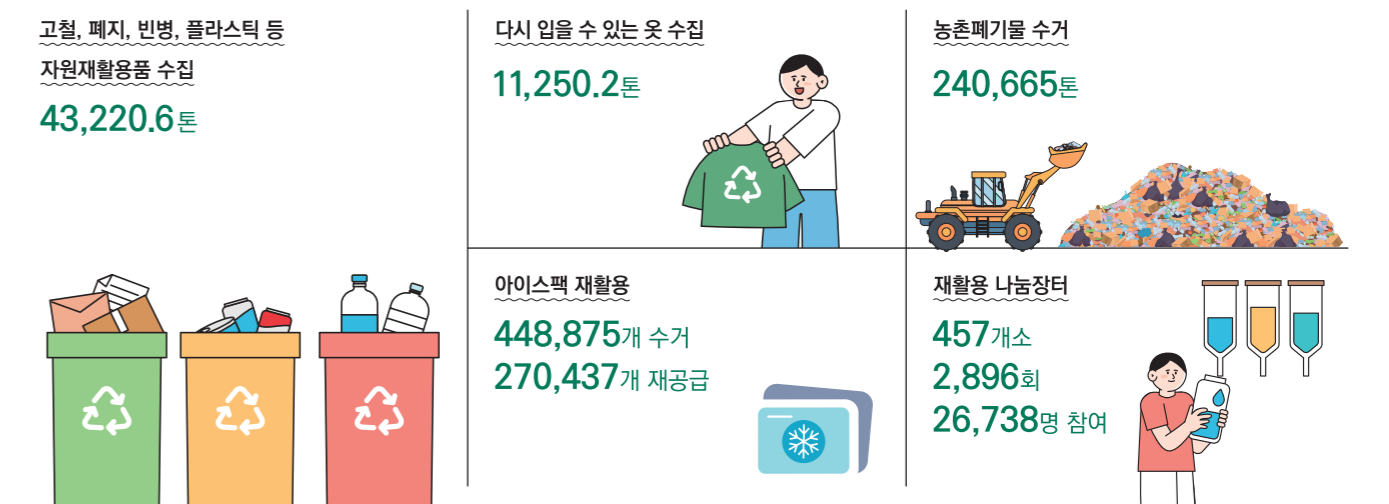
글. 편집실 사진. 새마을운동중앙회

2. 자원 가치의 재발견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천 홍보



이제는 자원을 한 번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시대가 끝났다.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의 자원을 무한한 것처럼 사용해 왔지만, 그 결과 자원 고갈과 기후 위기로 인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 순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다. 새마을운동으로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분리수거와 재처리를 통해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는 활동은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 냉장용 아이스팩을 수집·세척·소독해 지역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것도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 나눔장터와 같이 '나에게 필요 없지만 다른 이에게 필요한 것'에 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 방안이다. 자원재활용이 필수인 시대에는 국민들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가 순환경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4년 전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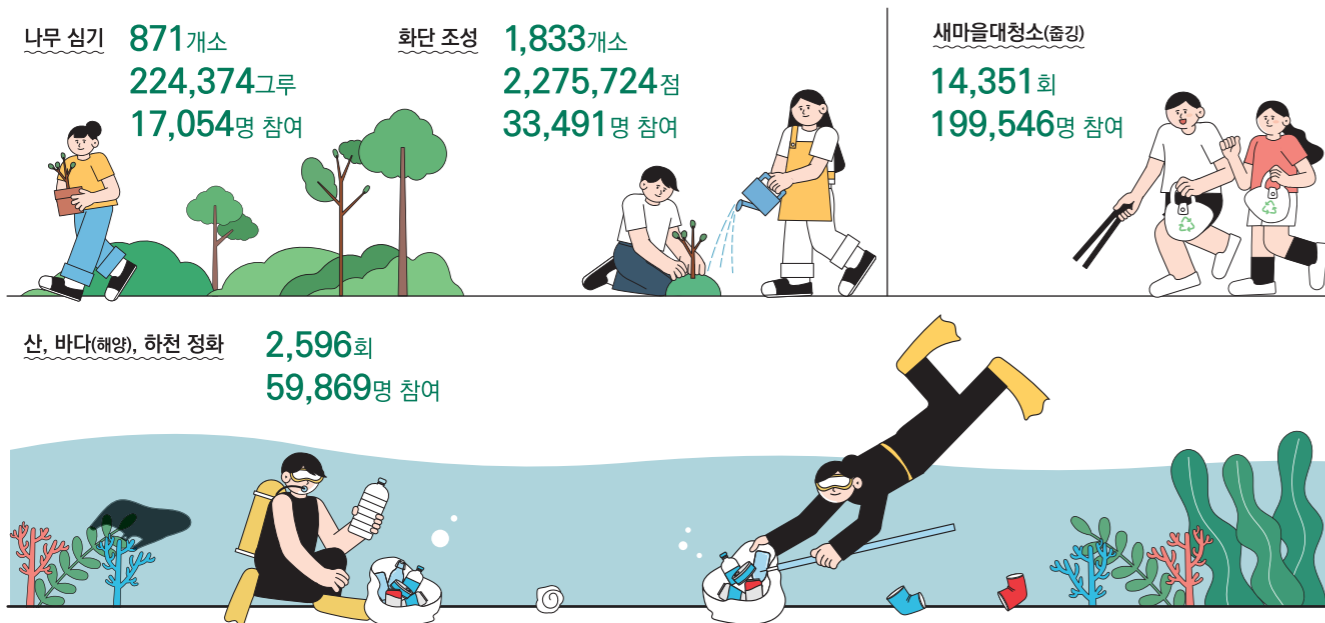


3. 탄소를 줄이는 자연·생태 보호 산림, 해양, 토양 등 자연환경 보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나무, 습지, 해양, 토양 미생물 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탄소 흡수원이므로 나무 심기, 하천 정화, 해양환경 보전과 같은 자연·생태 보호

활동은 탄소중립 실천에 꼭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화단과 꽃길 같이 도심 열섬효과를 예방하는 녹색공간을 확장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 간다. 새마을운동은 전국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건강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방법을 홍보해 왔다. 지속적인 정화 활동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 가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4. 연대와 협력으로 유관기관 공동사업

탄소중립은 새마을운동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인류가 힘을 모아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다. 여러 사람 또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새마을운동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누구나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진정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남북 그린데탕트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나무 심기)

- 협업 기관 : 산림청
- 추진 기간 : 2024. 3. 21.(목) ~ 5. 28.(화)
- 참여 지역 : 서울시 등 9개 시도, 66개 시군구, 새마을지도자 총 4,831명
- 주요 내용 : 총 47,680본 식재



*낙엽송 22,490본, 스트로브 잣나무 8,450본, 잣나무 16,740본



5. 다시 뛰는 2025년 자연과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 새마을(Green)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25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녹색 새마을'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마을운동이 다시 떨치고 나선다는 의미이다. 육묘와 조림을 통해 숲을 늘리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우리 집 주변과 마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오랜 전통이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과 자원순환 활동 등으로 힘을 보탠다면 당초의 실현 목표인 2050년보다 빠르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녹색 새마을

- 육묘와 조림
- 환경정화활동
-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 자원순환 활동 등

함께 심는 녹색 미래 새마을운동, 나무심기로 탄소 중립 실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70~1980년대 황폐했던 국토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노력으로 녹색의 땅으로 변화했다. 주민들은 마을 단위로 힘을 합쳐 묘목을 심고 산림을 가꾸면서, 민둥산을 다시 푸르게 바꿨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새마을운동의 나무 심기는 다시 한번 시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글. 편집실



새마을운동과 함께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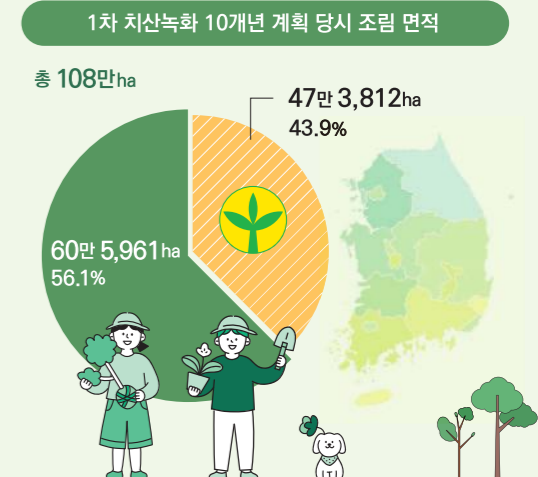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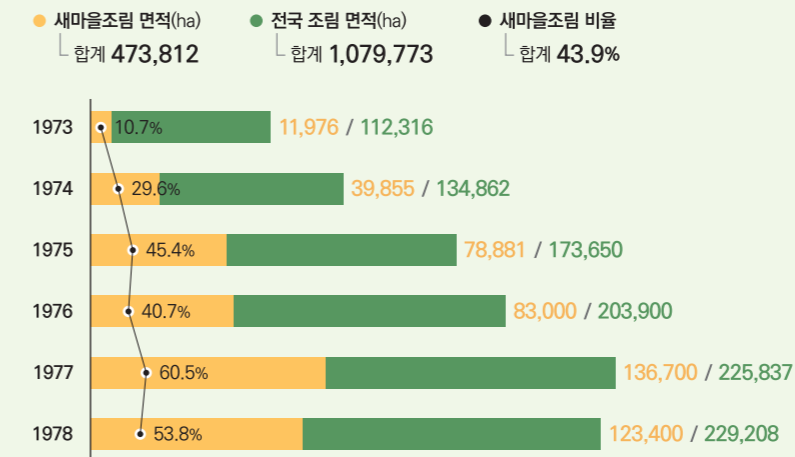
1970년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피해와 경제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심각한 산림 황폐화를 겪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뤄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산림녹화 과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 정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했고, 이 과정에서 산림 보호와 녹화 사업도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정부는 마을 단위로 나무심기 운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산림 황폐화를 막고 효과적인 산림 녹화를 추진하기 위해 새마을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따라 국토 녹화를 목표로 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녹색혁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82)'이 수립됐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100만 ha에 총 2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조림사업이었다. 황폐했던 국토가 빠르게 녹화됐고,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림복구 성공 사례를 보유한 나라로 꼽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7년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새마을지도자들(출처: 국가기록원)

산림 보호 정책도 체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크게 줄었고, 땀감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 연료림 조성도 확대됐다.

전국 조림 면적과 새마을조림 면적 비교



출처: 새마을운동, 1971-1987(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새마을 소득증대사업과 산림계의 역할, 이경준, 2012, 재인용)



전남 신안군새마을회가 나무심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가꾼 '새마을조림'

정부 주도의 산림녹화 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식의 새마을조림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산림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조림 사업을 주도하며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을 조직하고, 나무심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묘목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산

림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실제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조림이 완료된 108만ha 중 새마을조림으로 이뤄진 면적은 47만 3,812ha로 전체 조림 면적의 43.9%를 차지한다. 특히 1977년에는 조림 면적 22만 5,837ha 중 13만 6,700ha(60.5%)가 새마을조림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새마을조림을 통해 밤나무, 잣나무, 유실수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나무들을 적극적으로 심었는데,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다.

새마을운동으로 꽃피운 무궁화동산

198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국민 주도형 운동으로 발전했고 기업, 학교, 지역사회 단체가 나무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시와 농촌의 녹지 공간이 꾸준히 확대됐다. 그 사이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정부는 '제2차 치산녹화 계획'을 세우고 10년간 대규모 경제림 106,000ha를 조성했다. 이 시기에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무궁화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에 약 170만 그루의 무궁화가 심어졌다. 현재 전국 곳곳에 있는 무궁화동산의 상당수가 이 시기 새마을운동을 통해 조성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새마을운동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영역을 넓혔고, 나무심기 운동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산림 보호 및 도시 녹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숲과 공원 조성에 힘썼으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나무심기 및 산림 복구 지원 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했다. 특히, 사막화가 진행되는 일부 국가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적용한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현재도 한창 진행 중이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후, 새마을운동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 중심의 나무심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부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마을 안길, 주택가, 유휴지, 아파트 단지, 사회복지시설, 공한지 등에 총 154만 3,966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 한 그루당 탄소 흡수량을 약 10kg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연간 1만 5,439톤의 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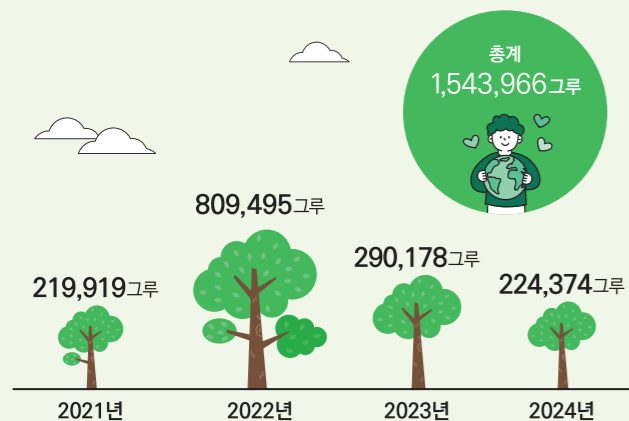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의 나무심기는 수치적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민관 협력으로 나무 심을 곳을 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나무심기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및 환경 단체와 협력해 대규모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산림녹화 사업은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더욱 깊은 가치를 지닌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협동을 증진했다. 함께 땀을 흘리며 국토를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애항심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산림녹화를 통해 환경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며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녹색국가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울창한 숲과 푸른 산림은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유산이다. 🌱

새마을운동 나무심기 운동 실적(2021년~ 2024년)



전북 정읍시새마을회 식목일 나무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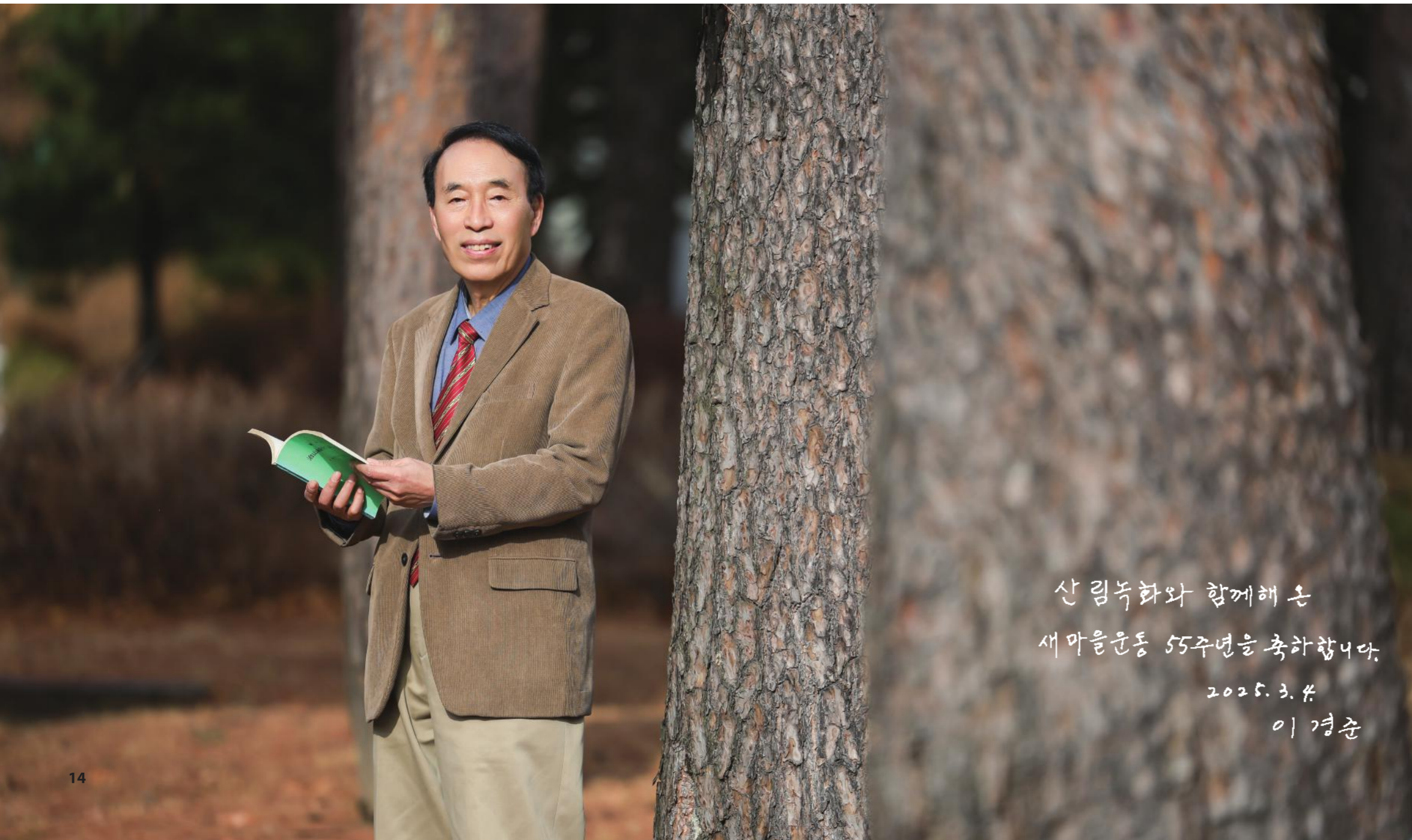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으로 향하는 당당한 발걸음

이경준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한 산림녹화 성공 국가이다. 새마을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산림녹화의 과정을 담은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는 2016년에 산림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림녹화기록물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추진위원장인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이미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새마을운동기록물처럼,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역시 등재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산림녹화와 함께해 온
새마을운동 55주년을 축하합니다.
2025. 3. 4
이경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한 산림녹화

산에 나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비가 오지 않을 때 즉시 가뭄이 발생하거나,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리면 흙이 쓸려 내려와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불과 50여 년 전, 전국은 그야말로 별거숭이산이었고 가뭄, 산사태, 흉년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산림녹화 성공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다. 특히 198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서독,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대한민국을 꼽았다. 당시 개발도상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는 '20세기 개발도상국의 기적'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제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훼손된 산림 복원에 집중했고, 전 국민이 산림녹화에 참여했다. 정부가 묘목과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농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해 나무를 심었다.

지역공동체인 '산림계'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산림계는 산림조합의 하부 조직으로, 1951년 제정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따라 마을마다 결성돼 규약과 벌칙을 만들고 산림자원을 관리했다.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림계를 결성하고, 연료림을 조성해 농촌 연료를 자급자족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묘목과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마을에 혜택(인센티브, 일거리 창출, 소득 증대)을 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었다.

“산림계는 마을 회의를 통해 정관과 규약을 논의하고 변경했습니다. 산과 들의 나무와 풀은 퇴비나 가축 사료로 사용되었는데, 무분별한 채취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를 통제(풀령)하는 역할 또한 산림계가 담당했죠. 산림계장이 함께 풀 베는 시기를 정하고, 그 날 짜가 되면 산림계원이 모여 풀을 베고 분배했어요. 산림계가 지역 공동체로서 큰 역할을 해 온 것이죠.”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산림녹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산림녹화기록물 세계를 향하다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모든 산림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경제 발전과 환경 파괴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개발도상국에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장 큰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21세기에, 산림녹화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례는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유자원 관리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오스트롬 교수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도 오랜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가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영문으로 번역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과 산림청 등록 민간단체(예: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인 '임우연합')는 산림녹화기록물 세계에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2016년 3월 한국산림정책연구회(1971년 설립)를 통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하고, 6월에는 40여 명이 모여 '산림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기록이 많이 소실되었을까 염려되어 선뜻 첫발을 떼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2013년 6월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산림녹화 역시 새마을운동처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업적이기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을 본보기 삼아 산림녹화 기록물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하지만 한국산림정책연구회는 민간단체이기에 사실상 정부 지원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추진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재능을 기부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다. 이미 등재된 다른 분야의 기록물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산림박물관 기록



물 열람, 시군 산림조합과 마을별 산림계 탐방, 국가기록원 자료 열람, 수집 자료 전산화 등 모든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

2017년 5월, 추진위원회는 3,600여 건의 자료를 1차로 문화재청에 제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능하다'였다. 민간 기록물 부족이 이유였다. 부족한 것만 보완하면 됐다. 이후 산림조합과 산림계 관련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2024년 2월, 총 9,619건의 자료를 다시 신청했다. 그 결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림녹화 기록물이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7년간의 노력에 대한 값진 결실이었다. 현재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 영문 번역본까지 제출을 마친 상태로, 오는 4월 중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그리고 미래

이경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 중 '자조'와 '협동'은 1951년 설립된 산림계가 마을 공동으로 연료림을 조성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이 곧 산림계 회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마을회와 산림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에 앞장선 것이죠.”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직·간접적으로 산림녹화에 크게 기여했다.

새마을교육을 통해 나무를 심으면 가뭄, 홍수, 산사태를 막아 흉년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새마을 양묘 사업과 밤나무의 공동 재배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 새마을금고를 건설하게 만들었다. 또 아궁이 개량 사업은 임산 연료를 30%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새마을조직을 통해 대규모로 새마을 조림사업을 수행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새마을사업 중 '마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조림 면적의 43%(47만 ha)를 새마을 조림 사업으로 해결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사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경준 교수는 새마을운동기록물처럼 산림녹화기록물도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 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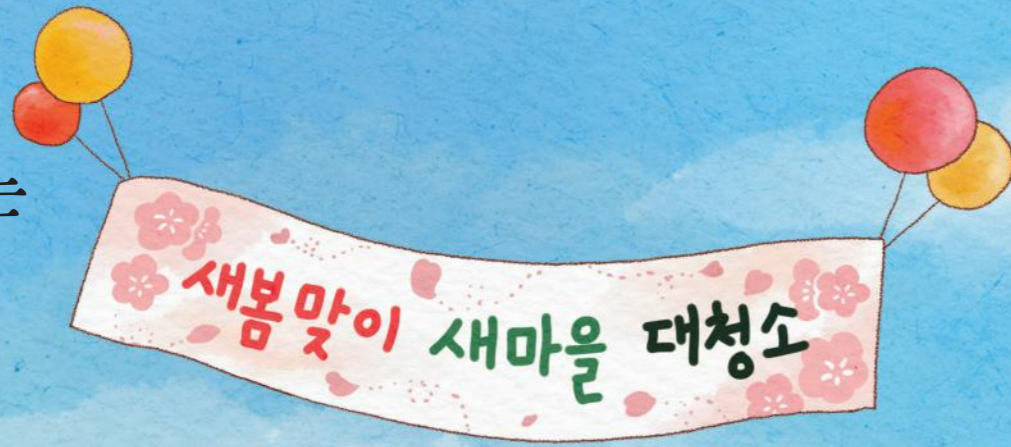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사례가 지역공동체 결성을 통해 부족한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경영과 관리를 가능하게 했듯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로 전 세계의 산림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구 살리기 운동의 모범국가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이경준 교수와 추진위원회는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산림녹화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며, 4월 발표될 최종 결과가 모두의 관심과 응원 이 모여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대한민국

그림. 전선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새마을대청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마을대청소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집단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이웃과 함께 땀 흘리며 청소하는 과정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도시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대한민국, 새마을대청소가 그 시작입니다. ↓



새벽종 퀴즈

Q. 이번 호 '새마을운동 일기' 코너에는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에 임하는 새마을가족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 QR코드를 스캔한 후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추천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도 새마을교육 새롭게 바뀐 6가지 알아보기

2025년 새마을교육이 시대정신을 담아 혁신적인 콘텐츠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바뀐다.

중앙회는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는 창의적인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 과정과 횟수, 인원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주말과정의 경우, 각 과정별로 개설돼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AI(인공지능) 활용 실습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올해 새롭게 바뀐 새마을지도자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1 교육입교대상 확대

- 초급, 중급 과정을 기본 과정으로 통합, 교육입교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생 선발에 효율성 제고
- 핵심지도자 과정 입교대상을 읍면동회장에서 임원 이상으로 확대

2 과정별 주말 과정 개설

- 핵심지도자에 한정돼 있던 주말 과정을 과정별로 개설해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입교 효율성 제고

3 주말 과정 교육일정 확대

- 기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확대해 교육 효과 제고



4 대학생·청년 과정 1박 2일로

- 대학생과 청년 과정을 1박 2일 주말로 변경해 참여율 제고

5 새마을지도자 현장 과정 개설

- 새마을지도자 현장 과정을 개설해 합숙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참여 유도

6 교육운영 개선

- 기초강의를 신설해 중앙회 정책방향 및 목표 전달
- 일과시작 시간을 06시 45분으로 조정하고, 휴식 시간 30분으로 확대해 연수생의 편의 도모
- 강의 시간을 70분으로 축소해 집중력 향상 기여

과정별 세부 운영계획

총 7개 과정, 87회, 10,430명 교육

새마을지도자 기본 과정

- 대상**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 교통봉사대
- 내용**
- 2025년 새마을운동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 새마을정신 함양과 지도자 역할
 - 스마트폰, QR, 키오스크, AI 정의와 영향, ChatGPT 실습 등
 - 녹색새마을운동(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실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
 - 건강새마을운동(저출생·고령화 대응, 사회갈등 해소)
 - 문화새마을운동(공경, 배려와 이웃사랑실천, 경(敬) 사상 고취와 섬김 리더십)

새마을지도자 핵심 과정

- 대상** 각급 새마을조직 읍면동임원 이상
- 내용**
- 2025년 새마을운동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 새마을정신 함양과 임원 역할
 - 마음수련, 성찰, 명상 등을 통한 임원의 자아실현
 - 조직 : 조직관리 패러다임 이해, 회원 확대, 리더의 자세, 인재 영입, 관리 기술, 갈등 해소, 우수사례 등
 - 사업 : 사업추진 절차, 특색사업, 위탁·국·공모사업 참여, 유관 단체 연대, 주민 참여 방안, 우수사례 등
 - 재정 : 출연금 정의와 운영, 예산 확보, 회원회비제 효율적 운영, 기금 관리, 우수사례 등

직장·문고지도자 과정

- 대상** 직장지도자 및 회원, 회원사, 업체임직원, 문고지도자 및 회원
- 내용**
- 2025년 새마을운동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 직장·문고 새마을정신 함양과 지도자 역할
 - 생활 속 AI실무(스마트폰 AI 기술, ChatGPT 실습 등)
 - 조직 내 갈등 해소, 상호소통 기술 등
 -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실무 교육
 - 마음수련, 자기성찰, 명상 등을 통한 자아실현

새마을지도자 정책 과정

- 대상**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장단, 시도 사무처장
- 내용**
- 2025년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
 - 조직의 미래에 대한 장기플랜, 국정비전, 공경과 배려 등
 - 지역별 새마을운동 추진 방안
 - 마을경영, 법안·비법인, 갈등관리, 리더십 등

청년새마을 과정

- 대상** 청년새마을연대 임원
- 내용**
- 새마을운동과 청년의 역할
 - 청년새마을연대 현황 및 사업소개
 - 청년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시관련 실무
 - 경(敬) 사상과 청년 리더십

대학새마을 과정

- 대상** 대학새마을동아리 임원 및 회원
- 내용**
- 새마을운동과 청년의 역할
 - 대학새마을동아리 현황 및 사업소개
 - 임팩트 비즈니스의 기회와 청년창업
 - 경(敬) 사상과 청년 리더십

새마을지도자 현장 과정

- 대상** 새마을지도자, 회원, 일반주민 등
- 내용**
- 2025년 새마을운동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 새마을정신 함양과 지도자 역할
 - 시청각 교육(새마을운동-조직, 사업, 재정, 지구촌 등)
 - 사례교육(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활동 사례 및 정보 교환)
 - 토의학습(녹색·건강·문화 새마을계획수립 및 발표)



교육 일정 안내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청정 무안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해양쓰레기부터 폐농약병까지

2024 전국 시군구협의회 종합평가 '최우수'
전남 무안군협의회

전남 무안군협의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환경정화 활동부터 소외계층 지원사업, 재난재해 구호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묵묵히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왔다. 청정 무안을 지키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선 그들의 모습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진심이 엿보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들의 꾸준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

글. 임영현 사진. 전경민



“
행복한 무안군을
만드는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섭니다
”

우리가 지키는 청정 무안의 가치

2001년 해양수산부 습지보호 지역 제1호로 지정된 갯벌이 있고, 게르마늄(저마늄)이 풍부한 황토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 덮고 있어 '황토골'이라 불리는 곳,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화산백련지에서 여름마다 연꽃 축제를 개최하는 곳. 바로 전라남도 무안군이다. 바다와 갯벌, 붉은 황토가 조화를 이루고, 청정 자연에서 황토 양파와 황토 고구마, 낙지, 감태, 곱창 돌김 같은 특산물이 유명한 이곳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다. 2024 전국 시군구협의회 종합평가 최우수상에 빛나는 무안군협의회다.

행복한 무안군을 만드는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는 무안군협의회가 지난 2월 25일, 봄을 앞두고 깨끗한 지역 만들기 위해 운남면 영해공원 바닷가에 모여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9개 읍면협의회장과 새마을지도자 40명이 2인 1조로 나뉘어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대가 가득 찼다. 무안군 해안가에는 폐어구가 가장 흔하게 버려져 있었다. 특히 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다 버린 타이어, 부표 등이 주를 이루었고,

종이, 타다 만 스티로폼, 라면 봉지 등도 눈에 띄었다. 심지어 솔뚜껍까지 발견될 정도로 다양한 쓰레기가 해안가를 뒤덮고 있었다. 해안가 청소를 마친 무안군협의회는 수거된 폐농약병 정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지정된 폐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농약병이 땅이나 하천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안군협의회는 폐농약병을 줍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산처럼 쌓인 폐농약병은 무안군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수거한 것이었다. 회원들은 곧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농약병을 마대에 담는 작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무안군협의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무안 곳곳을 청소하며 깨끗하게 변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보람 덕분에 무안군협의회 활동에 참여할수록 더욱 열심히, 오랫동안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읍면동 새마을봉사대상을 받은 박신배 몽탄면협의회장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때가 가장 부듯하다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무안군의 든든한 동반자, 무안군협의회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무안군협의회는 헌신 덕분에 무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무안군협의회는 434명의 헌신적인 새마을지도자와 163명의 열정적인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며, 무안군의 오늘을 빛내고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률 무안군협의회장은 무안군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선두에 있다고 자부한다. 2021년 9월,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무안군이 2022년부터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만 보아도 무안군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2021년부터는 지역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해 청소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는 술,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올해까지 5년째 이어지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무안군협의회는 ‘청소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새마을정신을 널리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운남면 사거리에 새마을기 계양대 20개를 설치하는 의미 있는 사업도 추진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제작되는 동전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한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 사업을 통해 동전을 모으는 등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당일부터 수습 기간 내내 유가족과 현장 수습 인력(소방·경찰·군인 등)을 위한 식사 지원, 청소 등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일단 눈에 띄면 시도하는 실행력

무안군협의회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섬세한 눈’을 가졌다. 그들은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인다. 지난해 추석, 무연고 묘소 벌초 봉사활동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예다. 마을에 외롭게 방치된 무연고 묘소를 찾으면 읍면협의회는 무연고 묘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예초기를 사용한다지만 벌초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상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연고 묘소 벌초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이 뜻깊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령이나 거동 불편으로 농작물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보면 이 또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수확철이 되었는데도 힘이 부쳐 농사를 짓기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땐 기꺼이 일손을 보낸다. 무안군의 자랑인 양파 수확을 예로 들자면, 밭에서 양파를 뽑아 줄기를 정리하고 모아 놓는 방식이다. 먼저 베풀었으니 내가 농사지를 때 도와달라는 의미도 아니고, 품삯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무안군협의회는 올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LED 리모컨 전등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행복한 무안군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동률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노후된 집을 수리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었죠. 또한, LED 전등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편의까지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농촌일손 돕기,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안군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안군협의회는 무안군을 향한 뜨거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이 보인다는 말처럼, 그들은 무안군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필요한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는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



“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



←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통 장맛으로 전하는 온기 충남 당진시새마을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장류를 사 먹는 일이 흔해진 요즘,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회원 600여 명이 활동 중인 충남 당진시새마을회다. 장독대가 있고, 메주 틀까지 제작해 사용하며 씨간장과 씨된장까지 갖춘 당진시새마을회는 2015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 장 나눔에 진심이다.

글. 임영현 사진. 홍승진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전통 장

1997년 시작해 3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마을사랑운동' 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당진시새마을회의 활동이 하나 있다. 메주를 썬 간장과 된장을 완성하고, 고추장도 만들어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전통 장 담그기 사업이다.

“우리 당진시새마을회 가족은 2015년부터 전통 장 담그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사업을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 다른 단체들도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의 필수 기본양념인 장에 주목하여, 매년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담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주를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장을 담그는 날입니다.”

지난 2월 26일, 5년째 당진시새마을회를 이끌고 있는 한만섭 회장으로 부터 전통 장 담그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층 야외에 있는 장독대로 향했다. 장독대 주변에는 당진시 14개 읍면동 협의 회장부녀회장 등 30여 명의 회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회원들은 장 담그기를 위해 전날 장독대를 정리하고, 항아리를 깨끗하게 세척, 소독하였으며, 소금물을 미리 타서 불순물을 정리하는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

항아리 안에 넣을 메주는 지난해 12월에 회원들이 직접 만든 메주다. 당진시새마을회는 지난해 11월에 지역 농가에서 메주콩 700kg을 구매한 후, 이를 세척하고 24시간 이상 불려 5시간 동안 콩을 삶았다.

“균일한 장맛을 내기 위해 메주 틀을 제작해 메주를 빚고 있어요. 이번에도 메주 500개를 만들었고요. 유익한 곰팡이가 메주에 자리 잡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발효 숙성 과정을 '메주 띄우기'라고 하는데, 메주를 잘 띄우는 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짚을 깔고 메주를 올린 후 건조하는 과정에서 온습도를 세심히 맞춰야



“
오늘은 메주를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장을 담그는 날입니다
”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쁜 곰팡이가 생기면 애써 만든 메주가 하루아침에 까맣게 썩어버리니 가시밭길이 따로 없어요. 사찰에서 장 만드는 방법을 배우오기도 했어요.” 김기택 당진시부녀회장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항아리에 함께 들어가는 마른 대추·건고추를 천으로 닦는 회원들이 보였다. 당진시새마을회는 메주가 소금물에 뜨지 않고 잠길 수 있도록 솔가지를 넣고, 가늘게 가른 대나무살로 고정한다. 대나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대나무를 쪼개 건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한 항아리에 넣는 메주는 25개. 회원들은 항아리에 메주를 조심조심, 차곡차곡 담고, 소금물을 부은 후 마른 대추·건고추, 숯을 띄우고, 솔가지와 대나무살까지 넣어 장 담그는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1년 걸리는 수고로움을 단번에 잇게 만드는 이유

2024년 10월에 국가유산진흥원이 발간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에 “한국의 장은 기다림의 미학으로 완성된다”라는 문장이 있다. 또한 “장은 365일 돌봄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써있다. 이처럼 당진시새마을회가 오는 11~12월경 1,000여 세대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전달하기까지 변질을 막기 위한 윗나무 조각 넣기(3월), 항아리에서 메주를 건져 간장과 된장을 분리해 발효시키는 ‘장 가르기’(5월), 고추장 담그기(11월), 포장 과정이 남아있다. 한마디로 수고로움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당진시새마을회가 직접 만든 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 장 담그기 사업에 참여하며 장 만드는 방법을 처음 배웠어요.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전달받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홀몸 어르신들인데요,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면 대견하다고 해주십니다. 정말 맛있다고, 고맙다고, 주변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연거푸 말씀해 주시니 힘들어도 해마다 참여하고 있어요.”

이상길 송악읍부녀회장의 말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장을 전달받는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11년째 장 담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담순 당진2동협



의회장의 말에는 정성을 쏟아 장을 만들고, 이웃에게 전달한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올해 장맛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장담순 회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사랑을 가득 담아 만들고 있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어요!”

장맛으로 더 커지는 가족이라는 의미

앞서 언급했듯이 당진시새마을회의 대표 사업은 단연 ‘우리마을 사랑운동’이다. 이 사업은 29년째 이어져 오는 당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동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획해 신청하면, 참여 마을을 선정한 후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온 당진시새마을회는 ‘우리마을 사랑운동’ 사업 평가 항목에 탄소중립 항목을 추가해 자발적인 실천을 장려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진시가 제주도, 충남 보령시, 서울 노원구와 함께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만큼, 당진시새마을회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줄이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의 목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우리마을

사랑운동’ 사업 평가 시 탄소중립 실천 항목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당진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인 올해 새마을지도자 명찰을 제작해 ‘살고 싶은 도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당진시새마을회 회원들은 장 담그기 활동을 마친 후 읍면동 별로 팀을 꾸려 신나는 윗놀이 대회도 벌였다. 도, 개, 걸, 윗, 모... 결과가 나올 때마다 앞서 나가는 읍면동에선 환호가, 기회를 놓친 읍면동에선 탄식이 나왔다. 다시마 고품을 올린 잔치국수와 부침개까지 만들어 나눠 먹는 모습에서 한민섭 회장이 회원들을 ‘가족’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중 “장맛은 백가백미(百家百味)로, 집집마다 맛이 다르다”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장 담그기는 가족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다. 당진시새마을회는 전통 장 담그기라는 귀한 명맥을 이어가며,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함께’라는 따스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의 장맛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우리 사회를 더욱 훈훈하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이자,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사는’ 더 큰 가족을 만들어간다. ☺

새마을의 미래를 이끌 밝은 청년들 서로 돕고 나누며 소통해요

2025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가 지난 2월 14일, 대전역 KTX 회의실 우암홀에서 '2025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의 운영을 책임질 3명의 임원이 선임됐다. 2025년도 회장단이 꿈꾸는 새마을운동의 미래 모습을 들어보자.

글. 최해진 사진. 김상준

Q. 안녕하세요,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벽중> 독자분들에게 자기 소개와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신유빈__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신유빈입니다. 작년에 이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는데, 우선 저에게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정빈__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3학년 신정빈입니다. 어엿한 회장단으로서 대학새마을동아리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는 부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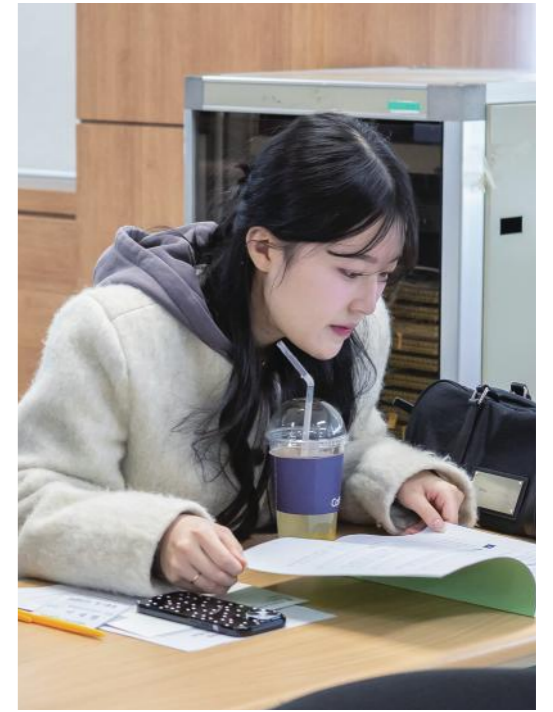
이태윤__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이태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회장직을 맡았는데, 지난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가 더욱 활발해지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모두가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Q. 올 한 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기대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회원들에게 공약을 설명해 주세요.

신유빈__우선 새마을동아리의 회원 수를 늘리겠습니다. 특정 대학 소속이 아니라도 시도(市道)에서 20대 회원을 모집하여 '시도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각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직접 만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고등학생이 훗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새마을동아리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정빈__'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국이 단합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국 각지에 나누어져 있기에 모두가 모이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이태윤__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봉사는 물론 각 동아리의 운영 방식을 배우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Q. 작년에 이어 구체적 활동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신유빈__올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의 주요 키워드는 도전과 친목이에요. 4월 중 동아리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전국의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발전하도록 동아리들이 함께 진행하는 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정빈__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예산 또는 봉사 물품을 지급합니다. 또 농촌 봉사활동이 예정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태윤__더 많은 대학에서 새마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대학 간 업무 협약을 준비 중입니다. 나아가 대학



신정빈__새마을운동은 바쁘게 앞만 보며 살아가는 청년층에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있어요. 새마을운동을 경험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느낀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하면서, 새마을운동이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윤__새마을운동으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있고, 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도전을 통해 성취감과 자기 발전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청년층에게 알릴 다양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원래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있었나요?

신유빈__코로나19로 대학교 1학년 시절을 잘 보내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어요. 대학새마을동아리라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에 가입했죠.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신정빈__신입생 때 어느 동아리에 들어갈지를 고민하는데, '전국연합'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겠다는 생각에 대학새마을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실제로 다양한 사람 만나고 여러 상황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윤__'스스로 봉사를 기획해 활동한다'는 대학새마을동아리의 포스터를 보고 가입을 결심했어요. 임원이 되어 여러 활동을 주최하다 보니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과 배움이 크더라고요. 특

새마을동아리 소속이 아니더라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이러한 추진 방향에 맞춰 새마을운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Q. 올해는 회원 수 확대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청년층에게 새마을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청년층에게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신유빈__20대 청년층에게 새마을운동은 낯선 역사일 수 있어요. 길거리나 시청 앞에서 보이는 새마을기를 통해 어렵듯이 접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점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고 변화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지 않을까요.



히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진행한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 전국 각지와 세계로 새마을운동이 확산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 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임하고 있는데, 직접 겪어 본 새마을정신은 어떠셨나요? 가치관이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신유빈__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의 현대인은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본인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경쟁사회 속에 살면서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경계심부터 품기도 했죠. 그런데 3~4년간 대학새마을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정'과 '협동'이 주는 따스함을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사람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구요.

신정빈__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여유롭고 느린 성향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직접 겪어 보니 그렇게 느긋하게 살면 발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마을운동을 하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었던 열정과 성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태윤__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사회와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계

시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학새마을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나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들려주세요.

신유빈__신한대 새마을동아리가 2022년 발족 이후 매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매우 기뻐요.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큰 보람이에요. 작년에는 피지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현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신정빈__해외 봉사는 고된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40°C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놀이터에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후끈거리는 지열에 입을 열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들 지쳐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듯 현지 아이들이 갑자기 춤을 추는데, 다 같이 웃음보가 터진 기억이 나요.

이태윤__매년 연말마다 진행되는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평가대회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일원이라는 점에 큰 소속감을 느꼈고, 서로 다른 곳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부듯했습니다. 🌟

선진국 된 한국, 핵심은 새마을운동

YU 칸 앞잘 영남대학교
국제개발새마을학과 교수

영남대학교 국제개발새마을학과는 새마을 운동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 기관이다. 한국 현대소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인도인 교수인 칸 앞잘 교수는 2023년부터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학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3월 5일, 국제개발새마을학과 연구실에서 한국생활 18년 차를 맞이한 칸 앞잘 교수를 만났다.

글. 최해진 사진. 전경민



Q 안녕하세요, <새벽종>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도에서 언어문화학부(네루대)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국어국문학(경북대)을 전공하셨는데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영남대학교 국제개발새마을학과의 칸 앞잘입니다. 제 학문적 여정은 2005년에 인도 네루대학교 언어문화학부 한국학과에 입학함에 따라 시작됐어요. 당시 인도에서는 주로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대기업이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삼성, LG,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산업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큰 놀라움을 느꼈고,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문학, 언어를 폭넓게 배우기로 결심했죠. 그러던 중 2008년 한국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경북대학교에서 국문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Q 이후 새마을운동에도 관심을 두셨어요. 지난 2023년 영남대학교 국제개발새마을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셨는데요,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석사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의 작품을 주제로, 박사 과정에서는 소설가 최인훈의 작품을 다룬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1970년대 한국의 농촌개발운동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처음 접했죠. 그러다가 2020년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농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통번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한국 농촌 개발과 관련된 방대한 강의 자료를 번역하면서 강의마다 새마을운동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영남대학교 최외출 총장님을 뵈실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해야



한다”며 새마을학을 공부해 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고, 그와 동시에 학생들도 가르치게 됐습니다. 현재는 국제개발영어, 지구촌사회와문화,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 국제기구와국제회의 등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인도는 매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농촌 개발에 힘쓰고, 인도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인도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과 인도는 역사적으로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제국의 식민지였고, 같은 날인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죠. 그러나 그 후, 한국은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반면, 인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많은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특히 농촌 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1960년대에 한국보다 먼저 녹색운동, 즉 농촌개발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인도에서의 농촌개발은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없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계획하고 주도해 철저한 단계별 실행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농촌의 생산 기반을 먼저 조성하고, 그 후에 소득 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각 마을에 유통단지를 구축하고, 곡식을 도시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유통구조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생산 증대까진 이루었으나, 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과 올바른 유통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이 창고에 쌓여 쥐들의 먹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철저하게 체계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도에 매우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입니다. 그 배경에는 새마을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는 한국이 단순히 산업화를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농촌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재구성한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이정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보편적인 경제학적 모델로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는 경제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USAID,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국제개발 프로그램처럼, 한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영향력을 펼쳐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가진 보편성과 실용성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농촌개발에 필요한 국가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Q 새마을운동에 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현재 저는 간디의 농촌개발 사상과 새마을운동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간디는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자치’의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정신 중 하나인 ‘자조’와 매우 유사해요. 또한, 간디는 부지런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근면’ 정신과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간디가 영국의 식민 착취에 대응하여 전 국민과 함께 펼친 ‘비협력 운동’ 역시 새마을운동의 ‘협동’ 정신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저는 간디의 사상과 새마을운동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강점과 인도의 약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도의 농촌개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

따뜻한 봄, 꽃처럼 아름다운 그대에게 칭찬의 편지를 전합니다



협의회

우리 지역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변봉남 제주도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변봉남 회장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며 지역을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물물교환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From_ **최만환** 경상남도협의회장



“최만환 경상남도협의회장의 따스한 칭찬에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의 빛나는 금자탑을 더욱 견고히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변봉남 제주도협의회장

직장·공장협의회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김상일 직장·공장 서울 송파구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직장·공장 서울 송파구협의회 김상일 회장을 추천합니다. 매년 새마을운동 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회원들과 조화롭게 새마을운동에 임하시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From_ **최지형** 직장·공장 경북 경주시협의회장



“저를 칭찬해 주신 최지형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조화롭게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_김상일 직장·공장 서울 송파구협의회장

부녀회

화합과 상생의 아이콘으로서 온기를 전하는
조동희 서울시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조동희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다문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울시부녀회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이루는 축제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From_ **황금덕** 인천시부녀회장



황금덕 회장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을 위해 헌신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이 저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 따뜻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회장님과 새마을 가족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_조동희 서울시부녀회장



문고

지역 주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김덕전 경북 경산시 문고지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김덕전 경북 경산시 문고지부회장의 열정적인 리더십 덕분에 경산시 새마을문고가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시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독서 문화를 확산에 누구보다 힘쓰고 계시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습니다.

From_ **김춘연** 경북 예천군 문고지부회장



“따뜻한 칭찬 감사합니다. 김춘연 문고 경북 예천군 지부회장의 칭찬은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문고 경북 경산시지부가 지역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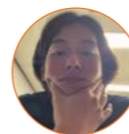
_김덕전 경북 경산시 문고지부회장

청년새마을

긍정의 힘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인희열 충남 청년새마을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충남 청년새마을연합회 인희열 회장의 밝고 열정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회장님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저도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From_ **김인중** 전북 청년새마을연합회장



“예상하지 못한 김인중 전북 청년새마을연합회장의 칭찬에 부끄럽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많은 청년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면서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_인희열 충남 청년새마을연합회장



대학새마을

남을 더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
공채영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신라대학교 공채영 회장을 추천합니다. 간호학과라는 특성상 실습이 많아 바쁜 스케줄임에 지난 한 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 연말평가 대상의 쾌거를 이뤄내면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매번 밝게 웃으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From_ **박형민** 대동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연말평가 대상의 쾌거를 이뤄낸 것은 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 덕분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장서고 노력하겠습니다.”

_공채영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중)으로 이어집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꽃내음이 전해지는 계절, 봄기운을 느끼기엔 산책만큼 좋은 것이 없다. 봄이 되면 서산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산책로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노란 수선화가 피는 유기방 가옥부터 천년의 미소를 머금은 마애여래삼존상과 가야산, 드넓은 초원이 있는 서산한우목장, 500년의 역사가 흐르는 해미읍성까지. 따스한 햇살 사이로 반짝이는 봄을 만끽하러 서산으로 떠나 보자.

글. 편집실

싱그러운 햇살 아래 서산의 봄꽃을 산책하다



봄꽃 향기가 가득한 유기방 가옥

유기방 가옥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지어진 백 년이 넘는 고택으로,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다. 송림이 우거진 낮은 야산을 배후로 남향으로 지어진 이 고택은, 북쪽으로 일자형 안채와 서쪽에 행랑채 그리고 동쪽에 사잇담과 현대식 주택이 위치하여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본래 안채 앞에 중문채가 있던 것을 1988년 헐어내고 현재와 같은 누각형 대문채를 세웠다. 고풍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정문 대감(강신일 분)의 집으로 활용되어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봄철 유기방 가옥은 수천만 송이의 수선화에 둘러싸여 노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유명하다. 3월 말 수선화축제가 열리면 한옥과 수선화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수선화의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고택 담장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어 봄 산책길로 손색이 없다.



백제의 미소를 품은 가야산

서산 가야산은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등 역사적인 명소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우선 마애여래삼존불(국보 제84호)은 후백제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가운데 보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입상과 반가사유상이 배치된 삼존불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마애여래삼존상은 우리나라 마애불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상의 미소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점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해가 비추는 시간에 따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온화해 보여 '백제의 신비로운 미소'라 불린다. 마애여래삼존상은 과거에는 험준한 절벽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돌계단이 설치되어 누구나 편안하게 '백제의 미소'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봄이 되면 가야산은 벚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연출한다. 그중에서도 개심사는 희귀한 벚꽃으로 유명하다. 열은 연두색을 띠는 청벚꽃과 솜사탕처럼 풍성한 왕벚꽃은 멋진 풍경을 선사한다. 가야산 문수사는 벚꽃 터널로 유명하다. 산사를 오르내리는 길 양쪽에 심어진 벚꽃이 터널을 이뤄 신비로움까지 자아낸다.





초록빛 넘실대는 서산한우목장

넓게 펼쳐진 초록의 물결을 자랑해 서산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서산한우목장도 서산의 봄을 만끽하기에 좋다. 서산한우목장은 본래 '김종필 목장'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농협경제지구 한우개발사업소로 우량 수소를 생산하는 목장이다.

전체 면적이 11만 1,700m², 초지 면적만 6만 6,500m²에 달할 정도로 광활하다. 현재 약 3천 마리의 한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서산한우목장은 2024년 웰빙 산책로 조성으로 개방되어,

이제는 누구나 광활한 초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총 2.1km 길이의 데크길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산책로는 야트막한 언덕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상에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맘을 식히면서 주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목초지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한우들은 마치 알프스를 연상케 한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초지가 연출하는 풍경에 청량한 공기까지 함께 해 힐링 장소로 추천할 만하다.



500년 역사가 흐르는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조선 태종 때 축조되기 시작하여 성종 22년(1491년)에 완성된 성으로, 서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충청도 지방의 모든 군사를 지휘하는 충청병영성으로 자리하여, 조선시대 국방의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다. 해미읍성은 일제강점기 철거됐다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복원 사업을 통해 동헌, 객사, 관아, 전통가옥 등이 제 모습을 되찾았다. 해미읍성은 평야에 지어진 성이라 넓은 규모의 성내가 특징이다. 가

벼운 마음으로 성곽과 내부를 산책하기에 좋다. 각종 전통가옥은 물론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 신기전 화차, 천자총통 등 다양한 무기도 전시돼 있어 역사 공부를 하기에 좋다.

봄철 해미읍성은 다양한 꽃들이 만발해 아름다운 정원을 연출한다. 이중 철쭉과 유채꽃이 유명하데, 백미는 유채꽃이다. 초록의 잔디와 샛노란 유채꽃이 조화를 이뤄 옛 마을의 정취를 한껏 올려준다. 성벽을 따라 줄지어 피어나는 유채꽃밭을 걸으면 싱그러운 봄기운에 흠뻑 빠질 수 있다. ☺

취향 따라 고르는 여행 코스 PICK



바다와 함께 걷는 길(삼길나루길-벚꽃길)
삼길산 봉화대 전망대에서는 드넓은 바다와 대호 방조제가 한눈에 들어와 몸과 마음이 저절로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삼길산 임도를 따라 걸으며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정갈한 마음으로 걷는 길(해미국제성지순례길)
해미국제성지에서 시작하는 '서산 아라메길 순례길'로, 서산해미읍성, 한티고개 등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와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옛 순교자들의 천주교 정신을 되새기며 걷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전통과 함께 걷는 길(천년미소길)
유기방 가옥에서 시작하여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으로 이어지는 '서산 천년미소길'은 서산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와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보 코스이다.



약이 되는 봄나물, 건강하게 즐겨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봄에 나는 모든 나물은 약'이라고 했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순은 질 좋은 영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 겨우내 지친 우리 몸에 활력을 준다. 봄을 대표하는 나물들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글. 편집실



냉이



간 기능을 복돋아 주는 '냉이'

향긋한 맛을 내며 미각을 돋겨주는 냉이는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간과 눈에 좋다. 냉이에 풍부한 '칼륨'은 이뇨를 촉진시켜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압조절을 도우며 콜린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소화액의 분비 촉진과 혈압 저하작용을 한다. 씹사름한 맛이 있지만 소금물에 살짝 데치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냉이는 보통 무침으로 많이 먹는데 살짝 데친 냉이에 갖은 양념을 섞어 만든다. 냉이를 콩가루에 버무려 찐 후 양념장으로 무치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까지 챙길 수 있다. 냉이는 국, 찌개, 전으로도 먹는데, 부재료로 음식의 향을 더해준다. 국이나 밥에 넣어 먹을 때에는 깨끗하게 손질해 마지막에 넣어준다.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살짝 익히는 것이 좋다.

썩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썩'

단군신화에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나물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냉한 기운을 쫓아내 통증을 줄여준다고 한다. 치네올이라는 성분이 혈액 순환을 촉진해 특히 감기와 여성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썩은 보통 떡을 만들어 먹거나 국을 끓여 먹곤 한다. 썩국은 쓴맛이 돌지만 육수를 이용하면 많이 즐길 수 있다. 보통 쇠고기를 넣곤 하지만 남쪽 지방에서는 도다리를 넣어 끓이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그 외에도 바지락이나 새우 등 해산물을 이용해서 끓여도 감칠맛이 뛰어나다. 썩은 전으로도 먹는데, 연근이나 당근과 함께 부쳐 먹으면 향긋한 맛이나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입맛을 다시게 된다.

두릅



사포닌이 함유된 봄나물의 왕 '두릅'

두릅나무의 어린 순을 채취하는 두릅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륨과 철분 등 무기질까지 고루 함유돼 있다. 씹사름한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항염증 효과도 좋다. 가시를 제거하고 생으로 보관하며 오래 보관할 때는 소금에 절이거나 살짝 데친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된다.

두릅은 숙회로 가장 많이 먹는다. 숙회는 소금물에 밀동을 먼저 데치고, 나머지 부분은 1분 정도 데치는 것이 좋다. 두릅무침은 고추장무침, 된장무침, 마늘간장무침 등으로 먹는데, 들깨 가루를 넣어 무쳐도 고소한 맛이 잘 어울린다. 또, 두릅을 초간장에 절인 두릅장아찌는 오래 두고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 🍷

달래



춘곤증을 날려주는 '달래'

알뿌리가 달랑달랑 매달린 모습의 달래는 마늘과 비슷한 매운맛이 난다.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에 좋고 간장 작용을 촉진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욕 부진이나 춘곤증에도 좋다.

달래는 생으로 무쳐 먹거나 찌개, 국, 볶음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 달래무침은 달래만 사용해도 좋지만 오이나 사과와 함께 무치면 더욱 입맛을 돋울 수 있다. 달래는 양념장으로도 많이 먹는다. 냉이밥, 곤드레밥, 취나물밥 등 각종 봄나물밥에 달래양념장으로 간을 하면 봄의 풍미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추천 건강 요리



जूकु미배이밥

- | | |
|---|--|
| 재료 | 레시피 |
| जूकु미 2~3마리,
냉이 70g, 무 50g,
불린쌀 2컵,
물 1컵 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जूकु미는 밀가루로 씻은 후 내장을 제거한다. 2. 냉이는 손질 후 소금물에 살짝 데친다. 3. 손질한 जूकु미를 냉이 삶은 물에 살짝 데친다. 4. 식힌 냉이와 जूकु미에 참기름과 소금을 약간 넣어 밀간한다. 5. 불린 쌀을 5분 정도 센 불에 끓이다가 약불로 10분 더 끓인다. 6. 밀간한 냉이와 जूकु미를 넣어 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상에 담아낸다. |

달래양념장

- | | |
|--|--|
| 재료 | 레시피 |
| 달래 60g, 진간장 6스푼,
물 3스푼, 참기름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깨소금,
다진마늘 1/2스푼,
고춧가루 1/2스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달래를 잘게 썰어 준다. 2. 재료를 모두 넣어 섞어 준 후, 달래를 넣어준다. 3. 양념장 용기에 담은 후 상에 낸다.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Vol.19

중앙회

정기 대의원총회

중앙회는 지난 2월 27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김광림 회장은 이날 “새마을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맞아 과거의 헌신을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SNS, I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다짐했다.



주한 보츠와나 대사 내방

지난 2월 28일 주한 보츠와나 대사가 중앙회를 내방했다. 이번 방문은 주한 보츠와나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앙회를 찾은 호칠레에네 모라케(Gotsileene Morake) 주한 보츠와나 대사는 김성호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제협력 사례 공유를 요청하고, 양국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매거진 '새벽종'과 함께하는 순간,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로 문의하세요(031-620-2372~3)

서울 윗놀이 대회

서울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3월 7일 시새마을회 회의실에서 '화합과 소통의 한판! 새마을부녀회 윗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포 서울시새마을회장, 손준용 광진구새마을회장, 각 구 부녀회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월 대보름 절식을 나누고 10개 팀을 이루어 윗놀이 대회를 즐겼다. 조동희 회장은 “윗놀이는 협동과 전략을 배우는 전통 문화”라며, “서울시부녀회가 화합과 소통을 이어나가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부산새마을신문 창간 14주년 기념·새해 화합 다짐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1월 8일 시새마을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부산새마을신문 창간 14주년을 기념하고 부산새마을가족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2025년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옥자 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임원, 내빈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해 새해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다짐하고,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2025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떡 케이크 절단식도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 청년연합회 정기총회·대구정신 이어가기 국제보상운동

대구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김동현)는 지난 2월 24일 시새마을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실적 보고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과 회원회비(안)를 의결하고, 임원선임(안)을 상정해 장시훈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문고 대구시지부(회장 이승로)는 지난 2월 21일 문고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강당에서 2025 나라사랑 대구정신 이어가기 국제보상운동을 추진했다.



인천 척사문화제 및 '동전의 기적' 사업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는 지난 2월 17일, 시새마을회관에서 10개 구군 새마을회장단과 청년연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윗놀이 대회를 개최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항일 회장은 “척사문화제를 통해 새마을가족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협의회(회장 윤영학)의 '나눔은 더하고, 탄소는 빼고!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 계수' 사업도 함께 개최됐다. 10개 구군 새마을회장은 각 구군에서 모은 동전을 정리하고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와 업무협약

문고 광주시지부(회장 김동노)는 지난 2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와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법무보호사업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과 보호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전 대전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지난 1월 16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와 지역공동체 회복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새마을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복 회장을 비롯해 이경원 협의회장, 남희수 부녀회장, 박홍용 직장·공장회장, 진춘식 문고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한방 의료봉사 공동 추진 등 글로벌 사업 협력, 한의학의 질병치료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울산 1단체·1시설 결연 온기나눔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3월 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1단체·1시설 결연 온기나눔 민·관 합동 대규모 자원봉사 결연식'에 참여했다. 이날 결연식은 14개 민간단체 및 기업과 14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1:1 결연을 통해 장애인 돌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새마을회는 북구에 위치한 태연재활원(시설장 장용석)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온기나눔 활동을 통해 재활원 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세종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도약 위한 지도자 육성 교육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2월 19일 새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도약을 위한 지도자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 1부에서 이재철 사무처장의 새마을운동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소양 교육을, 2부에서는 보조금 사용 및 정산, SNS 활용,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회장 원광희)는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 사업을 통해 모은 동전 3백여 만 원을 각 읍면동별로 계수하고 배분했다.



경기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2월 25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도 회장단, 도 이사, 31개 시군 회장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새마을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 건강, 문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경기도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와 경기도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청년이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을 실현할 계획이다.



강원 2025년도 정기총회·재판 승소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지난 2월 14일 원주시새마을회 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세입·세출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확정했다. 한편, 도새마을회는 지난 2월 11일 춘천시청을 상대로 한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건축물 사용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도새마을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춘천시청에 장례식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춘천시청은 건축법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었다.



충북 2025년도 정기총회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2월 13일 도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대의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2025년도 기본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남재호 회장은 "2025년도에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청년 조직 강화, 경사상을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화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새마을로 다시 행복 충남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지난 1월 16일 홍성군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15개 시군 새마을회장단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새마을회는 '개신창래(改新創來)' 정신을 강조하며, 충남도청과 협력하여 '새마을로 다시 행복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월 21일에는 도새마을회관에서 도 새마을회 이사 및 시군회장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청남도새마을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북 도시사 간담회·부녀회 정기총회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2월 12일 도 회장단 및 시군새마을회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동행, 도시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수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방향인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와 새마을운동의 비전인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연계하여 새롭고 특별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생 회복과 도민 통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녀회(회장 강귀자)는 지난 2월 5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긴급 구호 활동·2025년도 정기총회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국제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시군 새마을지도자 700여 명이 참여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사고 현장의 민간인 출입 통제 및 사진 촬영 제한, 유가족을 위한 떡국 등 급식 지원, 각 단체에서 지원한 구호 물품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지난 2월 4일에는 신안비치호텔 바하홀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경북 2025년도 정기총회 및 APEC 정상회담 성공개회 기원 캠페인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지난 2월 7일 도새마을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7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기본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서중호 회장은 "2025년도 중앙회 비전인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슬로건 아래 10가지 추진 방향 중 청년이 앞장서는 새마을운동과 청년 중심의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경남 2025년도 정기총회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 2월 20일 창원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녹색·건강·문화마을 조성, 청년새마을조직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김희용 경남도 행정국장을 비롯한 내빈과 도새마을회 임원, 18개 시군 회장단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5년도 기본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제주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1월 20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각 회원단체장 및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점심은 골목 식당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직접 장을 보고,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북5도 청년새마을연합회총회 개최

이북5도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홍우진)는 지난 2월 11일, 이북5도새마을회 사무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며 청년 새마을운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는 조성원 이북5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홍우진 회장, 현근호 부회장, 강훈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조성원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화합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구 새마을(지)회 우수사업사례집 활동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서울 광진구새마을회



알뜰도서 무료교환전

무엇을?

하나, 책 읽는 즐거움 함께 나누기
둘, 새마을문고의 알뜰도서 무료 교환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

어떻게?

- 도서교환시장을 통해 헌책 2권을 새책 1권으로 서로 교환
- 독서관장 홍보를 위한 굿즈(우산, 토드백 등) 제작·배포

Point!

- KB국민은행, 구청 보조금 등으로 일반도서 구입
- 신간도서의 보급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주민들의 문화 향상

#공동체문화조성 #도서교환 #좋은이웃만들기

부산 부산진구새마을회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골든벨

무엇을?

하나, 초등학교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
둘, 환경과 관련 학습을 통해 친환경 실천 의식 고취

어떻게?

- 관내 초등학교 2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골든벨 문제 풀이

Point!

- 가족이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함께 참가
- 예상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전 학습을 유도

#환경골든벨 #환경보호 #탄소중립실천

서울 중구새마을회



우리동네 민원 해결 프로젝트
'새마을일꾼이 땀다'

무엇을?

하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 해결 지원
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어떻게?

- LED 등 교체, 안전바 설치,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등 주민 생활편의 시설 개선
- 취약계층 세대의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 실시

Point!

- 기업체 및 관내 기술보유자의 참여 및 후원 유도
-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현황 파악

#공동체문화조성 #밀반찬나눔 #돌봄사각지대해소

부산 동래구새마을회



사랑이 넘치는 온천천 만들기

무엇을?

하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도록 인식 개선
둘,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어떻게?

-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탄소중립 캠페인 실시
- 온천천 주변 거리 공연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유도

Point!

- 친환경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매월 1회 온천천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캠페인 실시

#탄소중립 #친환경생활실천 #지속가능한사회

서울 성북구새마을회



다문화가족과 행복한 동행

무엇을?

하나, 다문화가족 및 이웃간 신뢰 구축과 유대 강화
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어떻게?

- 다문화가족과 새마을지도자가 함께 송편·밀반찬 만들기
-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의상을 소개

Point!

- 직접 만든 송편과 밀반찬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함께 나누는 문화 확산
- 한옥체험공간인 '예향재'에서 전통문화체험 및 자국의상 뵙내기

#공동체문화조성 #다문화가족 #좋은이웃만들기

대구 서구새마을회



생명나눔 실천 사랑의 헌혈

무엇을?

하나, 헌혈인구 급감에 따른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
둘, 정기 헌혈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어떻게?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협의
- 연중 2개월마다 단체 헌혈 및 헌혈 참여 캠페인 추진

Point!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협의하여 방문 일정 조정
- 연말 최대 헌혈 참가자 및 단체 시상 등 이벤트 진행

#좋은이웃만들기 #헌혈 #혈액수급안정화



광주 동구새마을회



새마을 아나바다 나눔장터

무엇을?

하나, 환경나눔 장터를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마련
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 확산

어떻게?

- 매월 1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
- 중고도서, 잡화, 소형가전 등 공유가능 물품을 교환 판매

Point!

- EM활용액, 천연삼베수세미 등 친환경 물품 나눔
-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실천 활동 정착

#공동체문화조성 #환경나눔장터 #탄소중립

경기 안양시새마을회



다문화여성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교류

무엇을?

하나, 다문화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소외 이웃에 대한 돌봄 실시
둘,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 및 정서적 고립 예방

어떻게?

- 다문화가족, 홀몸 어르신과 새마을가족이 함께하는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 전통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등 한국 전통음식 만드는 법 전수
- 다문화여성이 오늘의 셰프가 되어 세계각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요리

Point!

- 지역홍보대사(방송인)를 초대해 다문화가정의 문화차이·부정적 인식 제고
-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면서 문화 소통의 장 마련

#공동체문화조성 #다문화가족 #문화소통

대전 동구새마을회



이웃사랑 실천 나눔 '냉장고를 부탁해'

무엇을?

하나,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식재료 기부
둘, 나눔냉장고를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

어떻게?

- 마을 공유 공간 역할을 하는 나눔냉장고 설치

Point!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약자 돌봄 기여
- 새마을단체가 기부된 물품을 소분 포장 후 나눔냉장고에 진열

#공동체문화조성 #나눔냉장고 #좋은이웃만들기

경기 평택시새마을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무엇을?

하나, 다문화가정 및 영세 부부를 대상으로 건전한 결혼 문화 정립
둘,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한국생활 정착 및 이웃사랑 실천

어떻게?

- 매년 9월, 미 혼례 동거부부 4쌍 합동결혼식

Point!

- 결혼 준비를 새마을회, 자원봉사자, 예식업소가 역할을 나누어 진행
- 검소한 결혼식 운영으로 과소비, 낭비 풍조 예방

#공동체문화조성 #합동결혼식 #다문화가정

울산 중구새마을회



반구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어르신 도시락 전달

무엇을?

하나, 결식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도시락 지원
둘, 어르신 안부를 살피며 돌봄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 무료급식소를 통해 결식 어르신에게 연중 1인 1식(점심) 제공
- 재가어르신에게 도시락 제공

Point!

- 매일 6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해 무료 급식소 운영
- 몸이 불편한 결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 배달 시행

#사회안전망 #돌봄사각지대해소 #도시락전달

경기 가평군새마을회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

무엇을?

하나, 나만의 반려식물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둘, 세대간 교류 협력으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
셋, 지역주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확산

어떻게?

-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수업 진행
- 식물과 화분 등 식물에 대한 전반적 교육 실시

Point!

- 실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확산
- 새마을운동 홍보를 곁들여 미래 새마을지도자 육성

#탄소중립 생활실천 #반려식물 #세대교류



강원 강릉시새마을회



사랑의 밑반찬나눔

무엇을?

하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둘, 시기와 계절에 맞는 식재료 사용

어떻게?

- 매달 소외계층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김치 및 밑반찬 제공

Point!

- 리, 통 부녀회원의 추천을 받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실천
- 지역사회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

#고립감해소 #사회안전망 #공동체문화조성

충북 보은군새마을회



마을경로당 국화빵나눔

무엇을?

하나, 겨울철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
둘, 추억의 국화빵을 만들어 경로당 어르신께 전달

어떻게?

- 겨울(12월~2월) 동안 읍면사무소와 경로당에 추억의 국화빵 나눔

Point!

- 어르신들의 칭찬과 격려로 새마을지도자 자긍심 고취
- 지역간 마을주민간 소통의 장 마련

#공동체문화조성 #주민참여 #좋은이웃만들기 #추억의국화빵

강원 동해시새마을회



오늘은 내가 요리사 - 가족요리경연

무엇을?

하나,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기
둘,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기억을 통해 화목한 가족 공동체 형성

어떻게?

- 축제 현장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 경연 실시
- 우리가족만의 특별한 음식자랑 코너 개발

Point!

- 요리과정, 작품성, 가족화합 등을 전문가들이 평가 및 시상
- 경연 후 지역주민들의 자율 시식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

#공동체문화조성 #가족요리경연 #화목한가족

충남 보령시새마을회



사랑의 헌혈캠페인

무엇을?

하나,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
둘,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의 중요성 계도 및 홍보

어떻게?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 시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캠페인 시행

Point!

- 헌혈자 DB를 토대로 사전 행사 안내 문자 발송
-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인스타그램 등으로 홍보 및 확산

#공동체문화조성 #사랑의헌혈 #사회안전망

강원 양양군새마을회



홀몸 어르신 여름김치 전달하기

무엇을?

하나, 지역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효친 시상 실천
둘, 여름김치 전달하여 안부 전하기

어떻게?

- 휴경기 경작을 통한 식재료 사용
- 열무 물김치와 얼갈이김치 각 5kg씩 500통 전달

Point!

- 지역사회의 정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고취

#사회안전망 #경로효친 #돌봄사각지대 해소

충남 아산시새마을회



사회복지시설 방역 봉사 활동

무엇을?

하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지원
둘, 여름철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시민 위한 방역봉사 활동

어떻게?

- 관내 7개 사회복지시설에 주 1~2회 이상 방역 봉사 실시
- 여름철 3개월간 액화성 소독약 20회 분무 방역 시행

Point!

- 아산시보건소와 협력하여 소독약재 지원
- 사회복지시설 주변의 각종 해충 발생 억제

#공동체문화조성 #사회복지시설 #방역봉사



충남 서산시새마을회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무엇을?

하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둘, 수질오염, 토양오염 예방 위한 농촌폐기물 수거

어떻게?

- 분기별로 농촌폐기물 및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 개최

Point!

-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 마을별 수거활동 후 당일 경진대회 장소에서 폐기물 매각처리

#탄소중립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전남 광양시새마을회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무엇을?

하나,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오염 예방
둘, 생활 속 자원 재활용 방안 마련으로 탄소중립 실천의식 제고

어떻게?

- 공동주택 20개소에 아이스팩 수거함 100개 설치
- 모인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 건조 후 수요처에 배부

Point!

-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연계해 시민 홍보 시행
- 자원순환 및 일회용품 줄이기와 연계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식 제고

#탄소중립실천 #자원재활용 #아이스팩재활용

전북 익산시새마을회



새마을 시네마 봉사(새시봉)

무엇을?

하나,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 대상 무료 영화 상영
둘, 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떻게?

- 경로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가족과 이웃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선정

Point!

- 읍면동부녀회에서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상영장소 선정
- 맞춤형 문화배달 서비스로 현대적 새마을 이미지 조성

#공동체문화조성 #창조적지역문화 #찾아가는영화관 #새마을시네마

전남 담양군새마을회



소외계층에게 생일상 차려 드리기

무엇을?

하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세대에 사랑 나눔 실천운동 전개
둘,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건강한 복지사회 조성

어떻게?

-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세대에 생일상 차려드리기, 청소, 말벗 등 돌봄 활동
- 새마을부녀회 머느리봉사대 구성을 통해 공경문화 실천

Point!

-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통해 따뜻한 이웃의 정 나눔

#공동체문화조성 #사회안전망 #홀몸어르신 #어르신생일상

전북 정읍시새마을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계도활동)

무엇을?

하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둘,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감시 및 계도 활동 전개

어떻게?

- 매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에 청소년 계도 활동 및 보호활동 실시
- 스티커 부착 및 전단지 배부 등 유해환경 추방캠페인 전개

Point!

- 밀집지역 집중지도 및 순찰을 통해 청소년 탈선 방지 및 유해환경 정화

#공동체문화조성 #사회안전망 #청소년보호 #유해환경감시

경북 김천시새마을회



공동체 및 가족텃밭 가꾸기와 프로그램 운영

무엇을?

하나,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공동체 의식 함양
둘, 방치된 폐교부지 활용으로 도시경관 향상
셋, 생명사랑 운동으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어떻게?

- 폐교 부지에 공동체 텃밭과 가족 텃밭 조성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유도

Point!

- 요리교실, 천연염색, 자연 이용 소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문화조성 #공동체의식함양 #공동체텃밭



경북 구미시새마을회



새마을 알뜰장터

무엇을?

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자원재활용에 기여
둘, 알뜰장터 운영으로 근검절약 정신 확산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

어떻게?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새마을 알뜰장터 운영
- 자율판매 매장 설치 및 부대코너(체험, 중식, 소화행, 도서교환 등) 운영

Point!

- 개인 및 단체의 자율적 판매 부스 운영
- 의류, 신발, 도서, 문구 등 3천원 이하 판매 및 상호 교환
- 판매수익금 자율기탁을 위한 성금함 비치

#알뜰장터 #탄소중립 #자원재활용

경북 울릉군새마을회



해안·주요명소 정화활동

무엇을?

하나, 일회용품 줄이기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둘, 주요명소, 산책로, 등산로입구 환경계도 안내판 설치 및 정화활동

어떻게?

- 거리 피켓 홍보캠페인과 해변, 등산로 관광명소 방역 및 정화활동
- 월 1회 음식점과 상점 등을 통해 쓰레기, 플라스틱 줄이기 계도

Point!

- 쓰레기 정화활동과 되가져오기 캠페인 통해 생활환경 개선

#탄소중립실천 #해양쓰레기정화활동 #쓰레기되가져오기

경북 영주시새마을회



새마을 실버아카데미

무엇을?

하나, 어르신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둘,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버세대 인력 양성

어떻게?

- 고령화 사회에 맞춘 어르신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간 20회 어르신 대상 특강 시행

Point!

- 매회 특강 및 노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 수업별 임원진을 선발해 원활한 수업 진행을 조력

#공동체문화조성 #어르신교육 #실버아카데미

경남 사천시새마을회



환경 보호를 위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무엇을?

하나, 아이스팩 사용 급증에 따라 재활용 필요성 대두
둘, 자원 절약, 생활 쓰레기 감량과 환경보호 확대

어떻게?

- 다량 발생하는 '젤 아이스팩'을 수거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독·세척

Point!

- 설·추석 등 명절 전후 집중 수거 실시
- 수거 읍면동에 유류비, 식비 지원으로 사기 진작

#탄소중립 #순환경제 #자원재활용 #아이스팩 재활용

경북 영천시새마을회



새마을농장 운영

무엇을?

하나, 지역 내 취약계층 돕기 사업
둘, 농장 수확물을 기탁하여 봉사과 기부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어떻게?

- 새마을농장에서 감자, 배추 재배 후 수확물을 불우이웃돕기에 기탁

Point!

- 수확물을 영천시청과 협약해 취약계층에게 전달
- 가을철에는 농장에서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담가 나눔활동에 활용

#공동체문화조성 #주민참여 #좋은이웃만들기 #새마을농장

경남 김해시새마을회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나눔 활동

무엇을?

하나,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둘,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네트워크 조성 및 공경문화 확산

어떻게?

- 분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로 상호 신뢰성 확보
-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효나눔 활동을 위한 기부 네트워크 망 조성

Point!

- 새마을공동체(협력, 진행)와 새마을지도자(재능기부), 지역소상공인(현물기부), 지역행정복지센터(회의장소, 협력)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공동체문화조성 #주민참여 #재능기부 #나눔활동 #지역네트워크구축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1+02월호 독자 의견



이종숙

노인정에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이 없도록 구석진 곳까지도 모두 찾아가, 많은 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유광열

새마을운동의 젊은 별들이 빛나는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소개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며 화합과 번영의 새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보게 되네요.



전경욱

전 세계에 새마을운동을 확산하는 프로젝트에 뜻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이분들이 자국에 돌아가서도 새마을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 전도사로서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박순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글을 잘 읽었습니다. 겨울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 건조한 실내 공기는 물론 도로에 있는 얼음과 눈, 진눈깨비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죠. 이번 기사를 통해 겨울철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QR코드 스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의 날들을 되새기며, 더 희망찬 미래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